

<http://dx.doi.org/10.17703/JCCT.2022.8.6.97>

JCCT 2022-11-11

## 공유정보 데이터 확대로 인한 IT와 SIB의 사회 인식

### Convergence Plan of IT Social Safety and SIB by Expanding Sharing Information Data

서대성\*, 임헌욱\*\*

Seo DaeSung\*, Lim HeonWook\*\*

**요약** 본 연구는 불확실한 프로젝트 기업에 대한 투자시 시민에 대한 신뢰성, 그리고 사회성과보상 사업(SIB)과 IT 공유경제를 다룬다. 이는 세 분야의 융합을 통해서 경제적 효과와 사회적 안전의 투자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게 한다. 성공적으로 정보와 교류 활성화되는 전반적인 SIB(Social Impact Bond)과정의 모델 활성화한다. 그 실증적으로 사회적 IT서비스 금융에 대한 운영과 기법을 제시하여, 사회적성과 보상사업으로 혁신 생태계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를 검토한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소규모 공유 기관이나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하여 민간 투자자와의 연계능력을 조성하고, 비공유의 참여 장벽을 인식에 대한 가능성을 파악하고, 불확실한 분야에 대한 IT 공유 사업시, 시민 신뢰가 IT 사업의 큰 영향을 보여준다. 본 결과로 서울시가 추진한 사회적 공유와 IT협력을 위해서, 본 사업이 직접 설계 능력을 갖추기에 앞서, 사업 기획시 신뢰성과 안전성으로 책임을 지게 된다. 그래서 비공유시민들도 효과적으로 구성되고 창출된 플랫폼을 참여할 수 있다.

**주요어** : SIB, 신뢰성, 안전성, IT교류, 공유, 비공유.

**Abstract** This study deals with the credibility of citizens when investing in uncertain project companies, as well as the Social Performance Compensation Project (SIB) and the IT sharing economy. This allows the convergence of the three sectors to address investment inequalities in economic effectiveness and social security. Activates the model of the overall Social Impact Bond (SIB) process that successfully activates the exchange of information. The empirical presentation of the operations and techniques for social IT service finance examines how the innovation ecosystem can be created with social performance and reward projects. The analysis shows that small sharing institutions or citizens can participate directly to create the ability to connect with private investors, identify the possibility of recognizing non-shared barriers to participation, and show the great impact of citizen trust in IT sharing projects in uncertain areas. As a result, for the sake of social sharing and IT cooperation promoted by the City of Seoul, before the project has the ability to design directly, it will be responsible for reliability and safety in the planning of the project. Therefore, non-shared citizens can also participate in the platform that has been effectively constructed and created.

**Key words** : SIB, Reliability, Safety, IT exchange, Share, Non-sharing.

\*정회원, 성결대학교 파이테이아학부 (제1저자)

\*\*정회원, 한세대학교 교양학부 (교신저자)

접수일: 2022년 9월 19일, 수정완료일: 2022년 10월 25일

게재확정일: 2022년 11월 1일

Received: September 19, 2022 / Revised: October 25, 2022

Accepted: November 1, 2022

\*\*Corresponding Author: dais3s@gmail.com

Dept. of Division of Paideia, Sungkyul Univ, Korea

## I. 서론

최근 지역 간 불평등의 확대에 의한 지방의 사회성과 보상이나 운영모델들이 사회적 공유로 중요시 되고 있는데 그 기법의 중요한 대상으로 선진국 사례가 성과 보상 평가이다. 그러나 SIB (Social Impact Bond)의 선진 유사사례에 대해 기존에 정부나 지자체가 도입해 왔던 사회투자 활성화 관련 업무 중 선진 사례의 도입으로 향후 신규 기법 개발 방안을 제시한다. 본 논문은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공유정보와 성과지표 개발, 사업 성과분석 및 평가기법에 관한 융합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조례에 대한 지식을 이해하고 그 발굴 및 평가를 어떻게 운영할지를 그 방안을 연구하고자 한다. 현 시행할 법령 적인 사안이 시행 과정 중에서 나타난 본 문제를 사전에 이해하고 파악해야 한다. SIB 사업이 직접 설계되어 잘 진행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이로써 효과적인 사업의 참여자들을 잘 조정하고자 한다.

### 1. 사회적 공유교류와 SIB사업

본 연구는 사회성과보상 사업(SIB)과 공유경제의 상관관계를 연구한다. 이는 두 분야의 융합을 통해서 경제적 효과와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게 한다. 한국 기업 부문이 직면한 과제 중 하나는 혁신적인 신규 중소기업이 지속적으로 시장에 진입하는 것인데, 그 중 일부는 작고 숨겨진 챔피언이지만 일부는 단계적으로 대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역동성이 부족하다. 한국 경제의 역학 부족은 한국 사회 평등의 부족으로 이어졌다. 한마디로, 재능있는 젊은이들의 대부분은 대기업 부서에 집중되어 있으며, 소규모 기업에서 일자리를 찾는 것보다 성공을 위한 실업자로서 지내는 사회적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보다 혁신적인 중소기업을 만들려고 하면 한국 사회에서 기업가 정신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미국에서는 인텔, 애플에서부터 구글, 테슬라까지 글로벌 기업을 만들고자 하는 꿈과 야망을 가진 젊은이들이 창립 붐을 이끌고 있는 반면, 한국에서는 그런 도전 정신을 가진 창업자를 찾고 있다[1].

한국 중소기업의 구조적 원인은 대기업 부문에 비해 추진력을 잃는 이유는 무엇인가? 또는 구조적 원인은 한국의 중소기업 부문이 가능한 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2]. 이를 위해 모델로 도입

하게 되었다. 사회성과 보상사업 계획 수립 및 추진하며 신규 사회성과 보상사업 발굴한다. 이에 사업타당성 분석, 보상모델 개발 등 서울형 사회성과 보상사업 모델 개발. 사회성과 보상사업 심의위원회와 사회성과 보상사업 지방정부협의회 운영한다. 기타 사회투자 활성화 관련 업무 등도 이루어진다.

### 2. 참여자 성과보상과 시민들 간의 교류

본 보상의 공정성을 늘리는 것은 모든 사람이 똑같은 보상을 받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라기보다는 이 두 선의 차이를 줄일 수 있다. 사람들은 보상의 차이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공정하다고 느끼지만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정당한 이유에 비해 지나친 보상 차이가 있을 때 보상체제가 불공정하다고 느낀다. 보상의 공정성은 조직의 생산성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만 사회 전반의 정치적 안정성에도 중요한 요인이 된다. 정부는 상생협력력이 10대 그룹에서 30대 그룹으로 확대 되고 기업경영 전략으로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성과공유제 등에 대한 기업들의 참여가 확대되고 있는 것은, 정부의 상생협력 정책수단을 통해 상생협력에 대한 인식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했다. 그러나 산업연구원과 중소기업연구원이 조사를 보면, '상생협력실태조사'와 '상생협력지수 산정결과'에 따르면, 상생협력 실적에 대해서 대기업의 74.2%가 적정하다는 입장인 반면, 협력업체의 51.9%가 미흡하다고 평가하여 상생협력 실적에 대한 인식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일련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대·중소기업 간 동반자적 관계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평가하고 보다 견실한 기업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으로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새로운 공유정보로 이행하고자 한다. 결과적으로 4차 산업혁명에 맞는 공유사업을 통해서 신산업을 발전시키고 시민들의 공감을 얻게 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해야 한다.

## II. 선행 연구

### 1. SIB의 개념

본 연구는 처음 SIB에 대한 아이디어는 1988년 뉴질랜드의 경제학자인 로니 호레시 (Ronnie Horesh)가 현재의 SIB와 유사한 방식으로서 제안하였다. 이를 사회

정책채권(Social Policy Bond ; SPB)으로 활용하였으며, 그 중요성은 민간 투자자 간 거래가 중간에서 이루어지게 가능한 매개 역할임을 강조하였다. 이에 대한 방식으로 공유 정보에 포함하여 효과를 극대화한다. 사회적 성과 사업의 재논의가 도출하였다. 2006년 이후, 아쇼카(Ashoka)의 아서 우드(Arthur Wood)와 도이치뱅크(Deutsche Bank)의 기예르모 매클린(Guillermo Maclean)은 사회적 성과에 대해 공공성이 투자자에게 보상하는 성과기반 수익 모델(contingent return model)을 제시하였다. 그 이후 영파운데이션(Young Foundation)의 피터 휠러(Peter Wheeler)와 빅소사이어티캐피탈(Big Society Capital)의 데이비드 로빈슨(David Robinson) 등은 정부가 예방적인 공공사업을 통해 절감된 사회비용 중 일부로 투자자에게 성과를 보상하도록 제안하였다. 공유 및 재분배를 촉진하는 사회 제도는 자원 충격의 영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SIB의 실현은 영국의 소셜파이낸스(Social Finance Ltd)이 이들을 종합하여, 영국 법무부와 함께 세계 최초의 SIB사업을 기획하고, 2010년 피터버러시에서 첫 SIB사업을 개시하게 되었다. 그 결과 SIB는 정부의 효과적인 예산집행 및 공공정책 추진방식으로 받아들여지며, 북미, 유럽, 호주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었다. 아시아에서는 서울특별시에서 최초로 SIB 정책 도입을 하였다. 본 논문은 체계적인 문헌 검토 및 내용 분석을 기반으로 공유가치를 융합하여 안정성과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

## 2. SIB의 사회 안전망 연구

Knoll이 SIB는 사회 복지 프로그램을 위한 새로운 재정 메커니즘이다. 이들에 대한 새로운 점은 주 복지 제공에 전문 금융 투자자를 포함한다는 것이다. 그 약정은 더 효과적이게 되고 실패한 사회적 투자의 위험을 금융 시장에 팔아서 긴축의 시기에 국가들이 공공 자금을 절약하도록 돕는다. 이에 대해 비평가들은 공적 영역(Landnahme)의 추가 자본화 방식을 본다. 한편, 사회 공동 채권은 민영화와 체계적인 합리화를 통해 복지에 대한 공공 및 민주적 논쟁을 방지하는 한편, 복지 국가와 공공 지출이 다시 중요하도록 다룬다. 이것은 수십 년 동안 복지 국가가 감소한 이후, 새로운 것이다. 사회 공헌 채권이 어떤 종류의 분쟁을 일으킬지는 제도적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3]. Joy & Shields

(2020)가 SIB (Social Impact Bonds)는 사회 정책의 재정의 및 상품화를 촉진하는 비교적 새로운 정책 도구이다. SIB는 성과에 따른 지불 방식을 중심으로 한 시장 주도형 사회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개인 투자자를 유치하도록 설계되었다. 이 모델에서 사적 자본은 해방되고 사회적 목적을 위해 정리되어 “도덕적 시장”의 힘을 발휘한다고 했다[4]. 최근 사회 금융 혁신인 사회적 영향 채권은 민간 비영리, 영리 및 공공 기관의 자본과 지식을 활용하여 긴급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도록 설계하였다.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SIB를 사용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데 정책적 관심이 크지만 SIB의 출현 특성으로 인해 관련 데이터와 증거를 찾기가 어렵다.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Pandey의 3명은 연구 설계 전략으로 단일 중요 사례 샘플링을 이용했다. 미국 매사추세츠에서 사회 혁신금융으로 청년 재범 사업에 대한 심층 사례 연구를 수행한다. 그 사례 연구는 거래 비용을 이해하기 위한 다년간의 양적 이익-비용 분석한다. 이를 바탕으로 사례 분석을 위한 프레임 워크를 개발하고 계약의 다양한 당사자에 대한 위험 및 보호 조치를 강조하고 거래 비용을 계획하기 위해 공식적인 이익-비용 분석을 수행했다[5]. SIB (Social Impact Bonds)는 사회적 개입 활동을 결과 지불에 명시적으로 연결하도록 설계된 정책 개입이다[6]. SIB에 대한 문헌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SIB의 정보 시스템 특성 및 회계 메커니즘과 관련된 증거가 부족하다. 다차원 사회 기술 확대로 SIB 사례 연구에 적용하면 공공 관리 및 정보 시스템의 현재 문제가 있는 융합으로 드러났다.

Jamieson는 SIB 내의 정보 시스템이 도입되어 개선된 제공을 지원하기 위해 의료 계정을 문서화하는 것보다 지불을 위한 데이터 생성의 우선 순위를 점점 더 높이도록 조정되었음을 발견했다. 이 결과, SIB가 거버넌스, 관리 및 서비스 제공 관행에서 데이터의 설계 및 사용을 형성하는 방식에서 새로운 공공 관리 관행의 익숙한 문제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혁신으로서의 SIB가 제한됨을 밝혔다. Lowe가 SIB (Social Impact Bonds)는 지불을 결과와 연결하여 이론적으로 정부에서 개인 투자자에게 위험을 이전하는 새롭고 점점 인기있는 공공 정책 도구이다. 그러나, 이 연구는 SIB가 주요 행위자의 규칙, 규범 및 결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기 위해 제도적 작업 및 담론적 제도주의의 개념을 사용했다. 이것은 제도적 작업에서 구조와 주체의 상호

의존성이 수행하는 매개 역할을 한다. 또한 SIB의 효과는 결과 목표를 달성했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새로운 일련의 관행과 사고를 도입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7]. 그래서 신산업인 플랫폼 공유산업에 적용이 가능 하겠다.

### 3. 공유의 프레임 연구

Plewnia, Frederik은 공유 경제에 대한 지속 가능성 연구를 안내하기 위해 공유 경제의 일부로 간주되는 다양한 활동과 비즈니스 모델을 포괄하는 포괄적인 프레임 워크를 개발한다. 기존 유형론을 식별하고 개념적 교차점을 분석했다. 이는 공유 시스템을 특성화하기 위해 서로 다른 맥락에서 사용되는 4가지 주요 차원이 결합되어 하나의 포괄적인 유형, 즉 공유 상품 또는 서비스, 시장 구조, 시장 지향 및 산업 부문을 형성했다. 제안 된 유형은 유사점과 차이점을 기준으로 공유 활동을 구분한다. 공유에 대한 사회적, 정보적, 의사 소통 수단이 공유 경제의 기반으로 통합된다. 이를 통해 연구자, 실무자 및 정책 입안자는 광범위한 공유 분야에서 프로젝트를 포지셔닝한다. 공유 정보의 지속 가능성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분류는 향후 연구 및 정책 개입을 안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8]. 마지막으로, 전문 관리자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귀중한 아이디어를 시민들과 상호작용을 찾아야 한다.

위의 이론적 배경 연구들에서 공유정보를 접목하여, 사회안전과 신뢰는 자금을 공유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를 교류하면서, SIB가 융합되면 사회 시스템이 바뀌게 될 수 있다.

## III. 공유정보시대에 따른 연구방안

### 1. 안전망 정책연구

#### 1) 지역적인 방안

공유 정보시대에 지역적인 불평등이 격차가 심해지고 지역 공유 시설에 대한 안정과 정책들이 다양하다. 첫째 성과보상의 활성화에 따른 기업의 참여가 활성화 되어야 하며, 둘째 민간의 사회투자를 적극 활용성으로 존경받는 부의 척도가 필요하다. 셋째 선진 사례 기법들의 도입에 대한 실제적 가능성을 파악한다. 넷째 민간 투자자들이 발행하지 않은 채권형식의 계약으로 성공적인 투자가 활성화되는 전반적인 SIB (Social Impact

Bond)과정의 모델을 활성화한다. 다섯째 SIB의 공유 산업과 연계한 플랫폼화를 구축한다. 공동체적 리더십이 요구된 시대이다. 여기에 4차 산업혁명의 요소로 공유 정보로 함께하고 함께 만들어 내는 사회이기도 하다. 공동체 유대감이 요구된다. 이러한 시스템에서 보면, 사회적 보상 사업은 사회적, 환경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혁신적인 솔루션을 사용하고 달성된 결과에 따라 미래의 보상을 제공하는 혁신적인 행정 시스템이다. 정부는 사회적 보상 프로젝트를 통해 예산을 줄이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의 역량을 활용할 수 있다. 그 비용은 민간 투자 및 기부로 제공되며 결과 달성을 위한 투자 자금의 이익은 정부 예산으로 제공된다. 사회 보상 프로그램은 전 세계의 다양한 프로젝트와 함께 영국 도시에서 수감자의 재범률을 줄이기 위해 시작되었다.

#### 2) 선진 사회의 SIB방안

이 사업 품목의 지속적인 개발 이유는 치매에 대한 사회적 처방을 중심으로 의료 처방 영역에 도움을 제공하고 치매 환자의 접근성을 개선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미래의 고령화 사회를 준비하면서 동시에 사회에 공헌하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업 모델을 추구한다. 또 다른 경우에 혁신적인 회사를 만드는 측면에서 노인을 가진 대학생들은 협력하여 세대를 통합하는 인지 자극 프로그램을 개발 및 개발하고 지역의 다양한 기관과 협력하여 사회적 의미를 갖는다. 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현지 벤처 회사를 설립하고 시작했다. 한국은 이러한 추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공공 기관과 정부는 이미 사회 보상 프로젝트의 활성화에 인식이 높다. 따라서 2017년부터 기획 제안 및 아이디어 공모전을 추진(수도권)하고 있으며, 현재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 보상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관련 법안을 제안하고 있다. 특히 미국에서 법안이 통과되기 직전에 뉴욕시의 첫 SIB 프로젝트는 Dan Goldman Sachs와 Bloomberg Foundation의 초기 투자에서 최대 820 만 달러의 손실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이에 투자 청구서를 성공적으로 통과했다. 당시 뉴욕시는 결과 달성에 실패했지만 납세자를 전혀 소비하지 않았으며 프로그램이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4차 산업과 부합된 SIB는 새로운 방법론이며, 정책 홍보 및 예산 집행 덕분에 Goldman Sachs와

JP Morgan뿐만 아니라 Ford Foundation과 같은 회사가 설립 한 공익 재단도 SIB의 투자 집행을 증가시키고 있다. 이러한 법률은 일본에서도 추진되고 있다. 이는 공개할 공공 재산 및 보상 프로젝트의 홍보 및 활성화에 관한 법안 초안을 SIB 공공 및 보상 프로젝트로 할 예정이며, 지방 정부가 지출을 능률화 할 수 있는 장기적인 통찰력과 그것을 빌리는 기본 청구서가 된다. 일본은 정부가 풍부한 시장 유동성을 활용하여 미래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또한 일본은 청문 과정에서 각 정부 기관의 의견을 듣고 사업에 대한 이해 수준을 높여야 한다. 중앙 정부가 사업의 의지를 홍보 할 수 있도록 (법안에 따르면) 정부 부처는 지방 정부 차원에서 SIB 활성화를 지원하여 SIB 추진의 역사가 정부 부처가 수행한 지방 정부 공동 평가에 반영 될 수 있다. 또한, 공공 및 보상 사업 정책의 재정 안보부 장관하에 위원회가 설립되었고, 안보부 장관은 5년마다 정책위원회에 심의한 후 홍보 및 보상 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했다.

### 3) 융합 합의방안

이에 따라 지방 정부는 정부가 SIB 사업에 대한 규정을 개정할 수 있도록 보다 높은 수준의 법률을 만들도록 준비한다. 이는 4차 산업에 따라 생겨난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규제나 반발보다 훨씬 낮기 때문이다. 단, 지방 자치 단체와 민간 투자자가 탄력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대통령령에 따라 SIB 관리 및 평가, 인센티브 제공 등을 규제 할 수 있으며, 지방 자치 단체의 고유한 관련성 검토 방법 내각 명령에 위임되었다. 이 법안은 법령과 공청회가 필요하다. 이는 정부 영향으로 사회적 영향 채권의 개념이 아니라 브랜드화(인센티브의 개념)로 바뀌어야 한다. 사회적 영향 채권으로 다루고 있다. 그 본질의 개념상으로 SIB (Social Impact Bonds)는 사회 투자자가 지원하는 자선 단체 또는 기타 사회단체가 정부의 개입을 제공하는 성과급 지불 방법 계약이다. IT디지털, 사회문화, 미디어 및 예술, 스포츠 등 정보 전 분야에서 SIB 사용의 가장 큰 장벽은 이해 관계자와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이다. 본 참여자들이 SIB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대개 SIB의 이데올로기적 우려와 의혹에 의해 유발된다. SIB에는 미수금이 없고 현재의 용어 혼란에 대한 이에 따라, 이 모델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과 기반 계약을 개발하는 방법이 아니라 금융 상품으로 승격되었다. 사회적 투자의 사용이 SIB의 필수 기능이며 적절한 방식이 있지만, 결과 기반 접근법이 유용한 이유에 중점을 둔다. SIB는 이해 관계자들 상호간 “성과 기반 계약” 및 “사회적 자문수용”으로 이루어진다. 이는 “사업 계약”에서 고려해야 할 제안사항이나, 이에 참여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소규모 조직이다. 문헌, 사례 연구, 전문가 인터뷰 및 워크숍을 통해 사회적 영향 채권 (SIB)을 사용하는 공공 부문 커미셔너의 도전과 이점이 된다. 현재는 SIB에 참여할 수 있는 “용량 부족”으로 인해 소규모 조직에 대한 특정 장벽을 식별된다. 이는 “혼란스러운 SIB를 가진 이야기”일뿐 아니라 투자자에게 “선호하는 제공자”일 수 있다. SIB는 투자자가 선불 운영비를 지불 할 때 소규모 공급 업체를 장려한다.

### 4) 공유 사회로의 방안

공유 사회는 그 혜택 측면에서, SIB 프로세스를 통한 상당한 이해 관계자 참여가 많은 지역 위원들이 파트너십을 육성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며, 이는 보다 나은 지역 협력을 지원했다. 공유사회는 공급자에게 예기치 않은 결과는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다른 대형 자선 단체 및 사회 투자자와 협력하는 것이다. 정부 정책에 대해 초기 영국의 SIB는 정부의 강력한 수단으로 여겨졌다. 정부는 예산낭비를 줄이고 성과에 대한 지급보증을 해주기 때문이다. 2016년 시민 사회에서 그때까지 10억 파운드의 가치가 있다(Rob Wilson, 2016). 2017년에 정부는 더 많은 사회 영향 채권 기금 8천만 파운드를 모금했다. Life Chances Fund이 시작되었다. 2018년에 이 기금은 4억4천5백만 파운드의 22개 프로젝트에 할당되었다. Government Outcomes Lab에 따르면, 58개의 SIB가 영국에서 시작되었으며 52.8 백만 파운드의 비용이 든다. 사회적 투자자로부터 자본이 조달되었다. 거래 비용보다 SIB의 이점이 더 중요한가? 이는 SIB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높은 비용과 시간이 때로는 가장 가치가있는 주된 이유다. 거대기업과 경쟁하는 불확실한 플랫폼 공유 산업에서 사회성과 보상사업(SIB)는 가치 투자자의 불평등을 해소시켜주는 한 방안으로 제공할 수 있다.

### 2. 사회 정책사례와 안전망

위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SIB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일자리면, 복지 보건 측면, 장기적인 교육 학습 측면, 청소년 보호 및 범죄적 측면, 사회 안정 측면 등으로 구별하여 분석할 수 있다.

가, 일자리면에서 첫째, 내부적으로 네덜란드는 청년 실업률 감소 (2013) 2년간, 독일은 청소년 실업률 감소 (2014) 2년간 시행했다, 둘째, 외부적으로 벨기에서는 이주 외국인 취업 지원 (2014) 2년간, 스위스는 난민 취업 지원(2015)을 5년간 했다. 셋째, 질적으로는 영국과 캐나다는 니트족 생활환경 개선 및 취업능력 향상 (2015) 3년동안 및 미혼모와 그 자녀의 생활환경 개선 (2014) 5년간, 오스트리아는 가정폭력 피해여성 취업지원 (2015) 3년 동안 해왔다.

나, 복지 보건 측면에서 미국은 노숙인 생활환경 개선 (2014) 5년이며, 저소득 임산부 지원 (2016) 4년, 양육자의 약물복용 감소 (2016) 4.5년으로 활용하였다. 건강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영국은 만성질환자 삶의 질 향상 (2015) 7년, 노인 우울증 개선 (2015) 4년 실행했다.

다, 장기적인 교육 학습 측면에서 보면, 미국은 저소득층 아동의 학업 성취도 향상 (2014) 17년 과 이스라엘은 취약계층 공대 재학생 중퇴율 감소(2015)를 8년간 접근했다. 단기적으로는 포르투갈은 저소득 가정아동 학업성취도 향상 (2015)을 1년으로 다루었다.

라, 청소년 보호 및 범죄적 측면에서 영국은 단기 재소자 재범률 감소 2010 8년 과 미국은 위험 청소년의 재범률 감소 및 취업 지원 2014 7년으로 효율적이다. 다른 방식으로 영국은 위기청소년 가정이탈 방지 (2012) 5년, 입양 활성화 (2013) 10년, 시설거주 아동 원 가정 복귀 (2014) 5년 동안 투자를 이끌어 냈다.

마, 사회 안정 측면에서 보면, 영국 기술 웹 사이트 컴페리 테크가 내놓은 보고서에서, 한국은 전 세계 도시 중에서 cctv 보유량은 적은 에서도 범죄율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안전을 위해, cctv보유량면에서 중국이 상위 20위권 중 16개가 나타났고, 서울과 부산은 각각 44위 111위를 차지했다. 1위는 중국의 수도 베이징으로 시내에 cctv 115만개가 설치했고 상하이, 타이완 등 중국의 다른 도시들도 상위권있다. 중국 도시외에는 인도 델리, 하이데라바드, 첸나이 등이 높은 순위이다. 이에 반해 한국 도시들을 cctv보유량 에서 낮은 순위를 기록했는데 서울은 4만 883 대로 부산은 780대

였다. 이 뿐만 아니라 인구대비 감시카메라 설치 대수는 더 적다. 이에 대해 컴 페리 테크는 CCTV가 많다고 해서 범죄율이 낮은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공유도시에서 cctv 설치 찬성의 주된 이유는 개선된 법 집행과 범죄예방 이다. 그러나 CCTV와 낮은 범죄 지수는 상관관계가 거의 없으며 이는 한국을 보면 알 수 있다. 실제 한국은 주요 국가들보다 cctv를 적게 설치했지만 생명과 직결된 범죄율은 낮은 편이다[9].

국가 간 범죄 발생을 비교하면, 살인사건이 있는 나라마다 범죄의 규정과 집계 방식은 다르며, 살인은 대부분 동일한 정의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10]. 한국의 살인 범죄율을 인구 10만명당 0.6건이고 중국은 10만명 당 0.5건 있다(2018년 기준). 중국은 한국보다 80만대 cctv가 설치되었지만 범죄율은 비슷한 수준이다. 그리고 영국을 10만명 당 1건 인도는 10만명당 3.1건 두 국가 모두 한국보다 cctv가 많지만 높은 살인 범죄율을 보였다. 이는 공유 도시로 이행하는 데 중요한 사회 안전지표가 되며, 단순 SIB사업을 적용보다 실질적인 정성적 안전망이 중요한 개념이 된다.

1) 비공유융합

본 논문의 방법론은 그림 1과 같이 융합모델 (convergence model)로 SIB와 공유를 분석하지만, 계층간의 투자격차를 줄일 수 없는 공유정보보안 측면에서 마태효과 (matthew effect) 방법론으로 비공유를 파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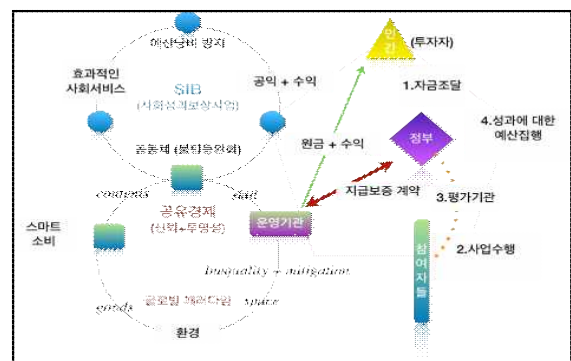


그림 1. 안전과 공유에 대한 신뢰와 SIB의 융합  
Figure 1. Convergence of safety and trust in sharing and SIB

공유와 SIB의 융합 개념은 신뢰와 투명성을 전제로 공유정보를 이끈다. 시민들이 공유를 이용하거나 희망하는 이유, 비활성화 이유, 활성화 이유, 활성화 희망 이유,

만족 이유, 불만족 이유, 활성화 낮은 정책, 향후활성화 방안 등으로 조사되었다. 이들 조사에서 서비스 품질이 우수해서/나빠서, 서비스 이용 가능 시간·장소가 편해서, 필요한 자원(유·무형)이 다양해서, 서비스종류가 다양해서/적어서, 자원감소 등 환경에 기여할 수 있어서/적어서, 이용절차 및 방법이 간단하고 편리해서/어렵고 불편해서, 경제적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어서, 기타 필요에 의해서, 보안 등 관리를 철저히 한다가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람들은 비공유(Non-sharing)을 유발한다. 코로나19 측면 이후에서도 이러한 상황을 지속될 것이다. 이런 비공유(Non-sharing)가 최소화시키기위해 다음과 같은 안전과 신뢰측면에서 실증 분석을 하였다.

2) IT공유 시민모형의 전제

공유정보에 대한 시민들이 비공유(Non-sharing)하는 점에서 다음의 전제로 분석하였다.

- 전제 1. 불확실한 플랫폼 공유에서 SIB는 신뢰와 안전이 선행되어야 한다.
- 전제 2. 이해 관계자 참여가 많은 지역 정책들이 파트너십으로 간접적인 공유 교류가 요구된다.
- 전제 3. 사회 투자자와 협력보다는 시민들의 신뢰를 쌓아야 한다.

공유정보와 SIB의 융합 개념은 신뢰와 안전성이 다른 시민들과 교류하는 것에 대한 개념을 파악할 수 있다. 그 전제로 공유정보가 확대될수록, 비공유(Non-sharing) 경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를 다음에 2018년도 공유도시 인지도 조사에서 나타난 통계치로 재정렬하고 상관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코로나 19와 같은 전염성 질병과 비대면 사회에서도 또 다른 근원을 증명하고자 한다.

IV. IT 공유도시 분석

그림 1과 같이 2018년도 공유도시 인지도 조사 결과로 실증 분석을 통해 협력 및 융합 가능한 분야를 분석하고자 한다. 다항 회귀분석으로 공유에 대한 시민들의 인지와 세부 정책들의 상관관계를 파악하면 다음을 알 수 있다.

종속 변수 : 다른 시민과 교류할 수 있어서/싫어서가 독립변수: 1)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어서, 서비스에 신뢰가 가서/안가서 등을 이용 이유, 만족 이유, 불만족 이유, 비활성화 이유, 활성화 이유, 활성화 희망 이유로 상관관계를 알 수 있다. 코로나19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과의 교류가 안전에 대해서 밀접한 관계를 나타냈다. 실증 분석을 통한 학문적·사회적 기여도는 여러면에서 공유를 통해서 SIB 활성화에 앞서서, 다른 시민과의 교류가 안전하면서도 서비스의 신뢰가 사전에 있어야 한다. 서비스의 신뢰가 없을 다른 시민과의 교류가 안되며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전제가 된다고 볼 수 있다. 공유는 사람들과의 교류를 원하지 않는 이면에서 불만족해 한다. 이는 신뢰와 안전과 상관관계를 이루며, 시민들과 교류를 원하는 사람과 원하지 않는 것은 항상 공존한다.

1. 정보교류에 대한 비공유와 공유 상관관계

표 1. 다른 시민과의 상호 작용에서 안전 공유 및 서비스 신뢰 공유에 대한 회귀 분석

Table 1. Regression analysis of sharing safety and sharing service trust in interaction with other citizens

	Intercept	Confidence in service	safe to use
Coefficients	-21.0295	-0.7697	3.5293
Std Err	14.7895	0.7126	1.5839
LCL	-68.0964	-3.0376	-1.5114
UCL	26.0374	1.4982	8.57
t Stat	-1.4219	-1.0801	2.2282
p-value	0.2502	0.3592	0.1122
H0 (5%)	Accepted	Accepted	Accepted
VIF		1.375	1.375
TOL		0.7273	0.7273
Beta		-0.4485	0.9253

2. 분석 수식

종속 변수 : 공유와 비공유(다른 시민과 교류할 수 있어서/싫어서)

각각의 독립적 변수로 분석했을시,

$$y = 0.01 * x^{3.01} \tag{1}$$

(신뢰에 대해, 안전에 대해) R2 : 0.6067

다중(두 개이상의 독립 변수로) 회귀 분석했을시,

$$y = -21.0295 + 3.5293 * x - 0.7697 * x \tag{2}$$

(y 다른 시민과 교류할 수 있고/싫고 : x

안전한 이용성 or 서비스의 신뢰)

R 0.7898

R2-0.6238 Adjusted R2-0.37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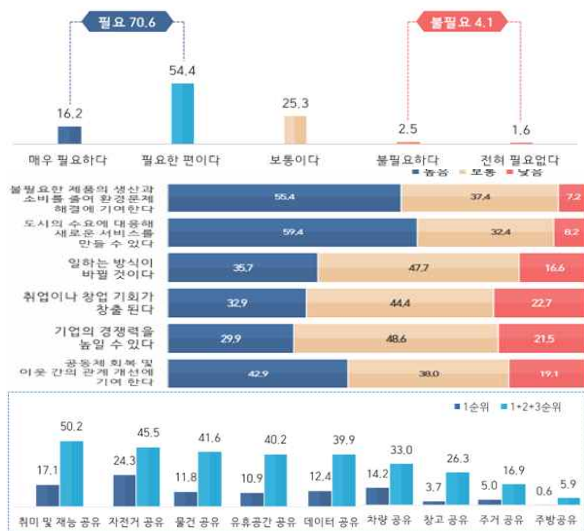
MSE: 35.8584 S: 5.9882 MAPE:53.8702

공유인지도 조사에서는 다른 시민과의 교류가 이용 이유는 3%이고 만족이라도 3.9%이나, 공유 활성화를 희망이유는 24.4%이었다. 그러나 비공유면에서 보면 다른 시민과 교류가 싫어서 비활성화 이유가 11%이고, 불만족 이유가 11.4%가 나온 것을 의미한다.

그 결과 서비스 신뢰와 안전하게 공유할 수 있어야 SIB융합 공유사업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 3. 결과와 시사

본 SIB (Social Impact Bond)사업의 공정성은 평등한 보상을 촉진하기 위해 사업에 참여하도록 계획되고 추진된다. 그러나 사람들이 차이를 보상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보상 모델은 공정한 것으로 간주된다. 공유사업이 성과를 달성 할 수 없거나 성과가 부족한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여기에 서비스에 대한 신뢰가 전제되어야 하며, 안전한 이용도 중요시된다. 불확실한 분야의 콘텐츠 사업에 대한 투자가 포스트 코로나 19시대에는 더욱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만약 보상 격차에 따라 보상 프로젝트가 불공평할 수 있으나, 신뢰와 안전에 대한 공유정보가 선행되어야 하겠다.



Source: Seoul (2022)

그림 2. 서울시 공유도시 인지도 조사(2021)  
Figure 2. Seoul City Shared City Awareness Survey(2021)

그 결과 성과 지표는 정량적 표준의 비율을 결정하는 방법도 중요하다. 보상평가의 공정성은 참여기업의 생산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새로운 사회성과 보상사업을 식별하고 공유 기관이 새롭게 지향하는 소규모 창출 사업들에 대한 타당한 평가의 표준을 제시할 수 있다. 또는 비록 공유자나 참여 기관들이 낮은 비율을 보이는 정성적 평가가 중요시 된다. 포스트 코로나19이후, 그림 2와 같이 적극적인 금융지원투자로서, 그 평가로 서비스 신뢰와 안전에 대한 완비로 인지도를 높여야 하겠다.

## V. 결론

공유경제에서 시민들의 신뢰가 중요하다. SIB의 공정성은 참여기업의 생산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한국형 사회성과 보상사업' 새로운 보상모델을 개발하여 적용 시 시행착오에 대한 문제점 해결을 위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지녀야 한다. 첫째, 투명한 사회와 불공정 투자방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선진 사례 기법이나, 신규 기법 도입 평가를 상용화를 한다. 둘째, 성공적인 공유 활성화의 관련 사례를 다른 지방정책들에도 적용하는 예상 결과를 알려준다. 셋째, 공유의 사회적 투자 성공으로 비공유문제점의 해결 방안과 정부 외에 기타 사회투자 활성화를 위해 민간을 구성하는 투자기업들이나 운영 단체들은 존경받을 만한 신뢰와 안전 역할을 마련해야 한다. 위의 전제에 대한 공유산업에서의 실증분석은 기타 간접 교류 공유(비대면, 플랫폼)방안으로 첫째, 불확실한 사회적 금융에 대한 공유정보와 투자를 이해해야 한다. 둘째, SIB로 혁신 생태계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를 검토할 수 있다. 셋째, 공유 소규모 기업들이나 조직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민간 투자자와의 연계능력 조성이다. 비공유로 인한 참여 장벽을 인식에 대한 신뢰와 안전이 있어야 한다. 넷째, 공유로 불평등한 사회나 프로젝트 기업에 대한 보상증대를 마련할 수 있다. 결국 코로나 시기에 비공유하려는 시민들도 효과적으로 새로운 플랫폼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 References

[1] Kim WS & Lim HW, "Research on Security Threats for SMEs by Workplace in the COVID-19 Environment,"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 Advanced Culture Technology, Vol. 10, No. 2, pp. 307-31, 2022. DOI <https://doi.org/10.17703/IJA-CT.2022.10.2.307>
- [2] Lim HW & Kim SJ, “A study on ways to make employment improve through Big Data analysis of university information public,”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Culture Technology*, Vol. 9, No. 3, pp. 174-180, 2021. DOI <https://doi.org/10.17703/IJACT.2021.9.3.174>
- [3] B. Henry & K. Basew, “Determinants of consumers’ participation in the sharing economy”, *International Journal of Contemporary Hospitality Management*, Vol. 31, No. 2, pp. 718-733, 2019.
- [4] J. Meghan & S. John, “How do Social Impact Bonds economize social policy?”, *Public Management Review Abingdon*, Vol. 40, No. 3, pp. 190-192, 2020.
- [5] P. Sheela, C. Joseph, “Use of social impact bonds to address social problems: Understanding contractual risks and transaction costs”, *Nonprofit Management and Leadership*, San Francisco, Vol. 28, No. 4, pp. 511-528, 2018.
- [6] Noh HJ, “Characteristics and Types of Social Impact Bond”,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Vol. 47, No. 4, pp. 333-360, 2016. DOI : [10.16999/kasws.2016.47.4.333](https://doi.org/10.16999/kasws.2016.47.4.333)
- [7] Lee JM, “The Review of Legal Nature by Type of Social Impact Bond(SIB)”, *Korean Journal of Banking and Financial Law*, Vol. 12, No. 2, pp. 97-128, 2019. DOI : [10.35274/kbfla.2019.12.2.004](https://doi.org/10.35274/kbfla.2019.12.2.004)
- [8] Park JW & Lee WB, “A Study on the Social Impact Bond for Implementing the Impact Investment in Korea”, *Korean Journal of Financial Studies*, Vol. 47, No. 2, pp. 267-294, 2018.
- [9] Lim HW, “Analysis of Psychological Factors Inducing Cybercrime,”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Culture Technology*, Vol. 7, No. 2, pp. 157-163, 2021. DOI <http://dx.doi.org/10.17703/JCCT.2021.7.2.157>
- [10]Seo DS & Lim HW, “A study on cultural understanding and regional cooperation in Yemen and Ethiopia, Vol. 7, No. 3, pp. 147-154, 2021. DOI <http://dx.doi.org/10.17703/JCCT.2021.7.3.147>.